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 신한이 뿌리는 고객

포스트 코로나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지주 설립 이래 금융권 최고 실적”
중기 전략으로 ‘프레시 2020s’
“고객, 신한 존재 이유·금융의 기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일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신한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경영포럼에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복 탄력성 ▲E(Eco-system)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 ▲S(Sustainability)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 ▲H(Human-talen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 등을 말한다.

무엇보다 신한금융의 기초체력이자 기본은 고객이다.

조 회장은 “고객은 신한이 존재 이유

이자 금융의 기본”이라며 “올 한 해 ‘고객 퍼스트(First)’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그룹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객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쌓아 가자”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경영슬로건을 그대로 반영한 ‘근고지영(根固枝榮)’과 ‘병형상수(兵形象水)’를 꼽았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근고지영’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다. 고객과 사회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성장의 기초체력을 다질 방침이다.

손자병법 제6편 허실(虛實)에 나오는 ‘병형상수’는 전장에 임하는 군대는 물과 같이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함을 말한다. 급변하는 환경, 높아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 금융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복잡성의 시대 생존법... ‘계모형세’
조 회장은 지난 4일 비대면 디지털 포럼으로 열린 ‘2021년 신한경영포럼’에서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는 복잡성의 시대(Age of Complexity)에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복잡성의 시대란 코로나로 인한 정치·사회·경제 및 소비 형태의 변화를 비롯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강대국 간 무역 갈등 심화, MZ 세대 등장 등 지금 시대의 환경을 표현한 말이다.

조 회장이 내놓은 해법은 ‘계모형세(計謀形勢)’다.

먼저 첫번째 단계 ‘계(計)’는 명료한 전략이다. 전략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

하기 쉬우며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는 “리더들은 명료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놓은 축적의 힘을 바탕으로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언제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것은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과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謨)’는 능숙한 전술이다. 조 회장은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수익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경험 가치와 의미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수립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形)’은 이기는 조직, ‘세(勢)’는 신속한 실행을 말한다.

조 회장은 그룹사 CEO들과 출사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에서 “2021년의 성공을 만드는 비결은 지금에 집중하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며, 신한이 트레이드 마크인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화그룹 금융사 “탈석탄 한뜻... 친환경 투자” 하나은행, 국외 AML 시스템 고도화

한화그룹 금융 6개사 탈석탄 선언 친환경 관련 자산 투자 지속 확대 탄소제로시대 선도 위한 환경 경영

한화그룹 금융계열사가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는 금융사장단 결의와 실무검토를 거쳐 탄소제로 시대를 향한 ‘한화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고 5일 밝혔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 따라 한화그룹 금융 6개사는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채권이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한화저축은행 김성일 대표이사, 한화자산운용 김용현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이사,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 캐롯손해보험 정영호 대표이사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금융을 선언하고 있다. /한화그룹

이번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금융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 금융’을 결의했다.

‘탈석탄 금융’ 선언은 한화그룹이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금융계열사들의 첫 실행방안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2008년 국외 AML 시스템 최초 도입

하나은행이 국제적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거대 모니터링 시스템(국외 AML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하나은행은 국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2008년 은행권 최초로 글로벌 은행 수준의 국외 AML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2년과 2017년 두차례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은행권 최고 수준의 모

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차세대 국외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사례 분석 도입 ▲자금세탁 유형론을 활용한 시나리오 확장 ▲고도화된 자동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레그테크(Reg-tech·규제와 기술의 합성어) 기반의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외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사회초년생 맞춤 ‘첫급여 우리 패키지’

타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이 사회초년생 고객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패키지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첫급여 우리통장’, ‘첫급여 우리적금’,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로 구성된 첫급여 우리패키지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급여이체 하나로 모든 우대혜택이 가능하다.

첫급여 우리통장은 급여이체 조건 충족 시 우리은행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전자금융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자동화기기 출금 및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제주여행패키지(제주도 여행·리조트

1박 숙박 및 렌터카 1일 이용권 제공)와 신용대출금리 연 0.3%포인트 우대쿠폰을 지급한다.

첫급여 우리적금은 매일 10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급여이체 우대조건만 충족하면 최고 연 2.2%(기본금리 1.1%, 우대금리 1.1%포인트)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현재 직장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 급여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금리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은행의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로 전환 시 연 0.2%포인트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이영석 기자 ysl@

‘KB글로벌페이먼트 유산스’ 신청 채널 확대

KB국민은행은 ‘KB글로벌페이먼트 유산스(Payment Usance)’를 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KB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KB글로벌페이먼트 유산스’는 국

내 수입기업이 수출기업에게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금리 경쟁력이 있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금 선지급 등의 금융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국내 수입기업은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결제하면 된다.

기존에는 수입결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대출 또는 외화대출을 이용했다. 반면 ‘KB글로벌페이먼트 유산스’를 이용하면 해외금융기관에서 저렴하게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해 수입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결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품은 KB국민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송금방식 수입금융 상품이다.

/안상미 기자